

바이오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의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것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발전된 국가이다. 2001년 현재 영국에는 약4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약 18,700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며 약 18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48개 업체가 상장되어 있으며 이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다. 또한 유럽에서 후기 임상 실험 단계(Phase III)에 있는 제품의 62%가 영국 업체의 것이다. (참조:표1·2)

영국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의 위치에 있는 데는 3가지의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탁월한 과학 기반, 견고하고 숙련된 투자 기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다.

바이오 산업에 있어 계속되는 영국의 성공은 깊이 있는 기초 과학에 근거한다. 영국 과학자들 중 44명이 지난 50년간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중 과반수가 바이오 과학 및 의학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들에는 Celltech, Cambridge Antibody Technology, Antisoma, Oxford GlycoSciences 및 Xenova등이 있으며 영국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트는 런던, 옥스포드, 캠브리지등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는 잉글랜드 서부 지역 그리고 스코틀랜드 중심부를 들 수 있다.

영국에는 Sanger Centre, Roslin Institute,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Europea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및 Medicines Control Agency와 같은 수많은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있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숙련된 venture capital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이다.

2001년 미국이 전세계 투자의 46%, 다른 유럽국가들이 16%를 받아 들이는 동안 영국은 29%를 받아들였다. 영국은 가장 크고 전문화된 바이오 투자 펀드의 본거지이다.

2001년에 영국에서 생명 과학에 10억파운드가 넘는 돈이 모여졌다. 과거 몇 년간 유럽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상당 부분이 영국에 투자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영국이 전 유럽의 31% (2억5천4백만 파운드)와 35%(3억천4백만 파운드)를 받아들였다.

바이오산업은 영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Tony Blair 수상은 영국이 이 산업의 선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00년 11월에 그는 영국이 유럽의 바이오 산업에 있어 선두자 뿐 아니라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기초 과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학을 지식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바이오 과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기초 과학과 젊은이들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 교육 및 여러 가지 기반 구축에 더 많은

영국의 바이오산업

(표 1)

	1996년	2001년	증가(%)
바이오 기업 수	159	395	148
종사자 수	8,590	18,700	118
기업차원에서의 연구개발비	£ 184m	£ 850	363
매출액	£ 497m	£ 1,838	284

각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표 2)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매출액(단위 £m)	1,838	658	475	17,566	-
종사자 수	18,700	14,400	4,500	191,100	7,000
기업 수	395	365	240	1,457	271
상장기업 수	48	20	8	339	2
개발중인 제품	154	11	27	-	-

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예를 들면, Research Council, 여러 가지 기술이전 프로그램, Biotechnology incubators, the University Challenge,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및 BIO-WISE initiative가 그것이다. 'The 25million Harnessing Genomics' 프로그램은 영국의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통상산업부(DTI)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함께 인간의 유전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Genetic Knowledge Parks' 라는 프로그램에 공동 투자를 했다. 또한 바이오 사업에 있어 특히 개발 및 임상 실험의 단계에서 바이오 제조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국 북서쪽에 설립된 '국립 바이오제조 센터(National Biomanufacturing Centre)' 또한 지원해 왔다.

영국은 전 산업에 걸쳐 국제 협력(international partnership)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기업들은 유럽, 미국 및 아시아의 기업체 및 대학들과 협력중이다.

영국은 이러한 협력 관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4개의 국제 기술 중재인(International Technology Promoters)을 지명했는데 바이오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있으며 2002년에는 영국의 과학 기술담당 장관인 Lord Sainsbury는 바이오산업 및 의학 연구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5백만 파운드를 쓰겠다고 공포하였다.

영국 정부는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국가의 가장 주요한 산업이며 산업이 성장하고 번성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주한 영국대사관 - 김옥순 투자담당관
 전화 02-3210-5612 팩스 02-738-2797
 www.britain.or.kr
 [e-mail] oksoon.kim@fco.gov.uk osk@orgio.net